

황숙주 군수, 순창발전 논의

당선 후 첫 간부회의서 국비확보 · 공약사업 추진 · 민생 해결 강조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순창군수 3선에 당선된 황숙주 군수가 순창군 발전에 강력한 시동을 걸었다. 18일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는 황숙주 군수 주재하에 실과원장, 읍면장, 주무계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여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간부회의의 자료부터 확 달라진 서식은 황 군수의 국가예산 및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엿보였다. 이날 자료는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과 현안업무 추진상황 소재목에 자세한 추진현황이 담겨있었고, 자료 보고 후 황 군수가 사안별로 꼼꼼히 챙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황 군수가 이날 회의석상에서 중점적으로 강조한 분야는 ▲국가예산 확보 ▲공약사업 추진 ▲민생 해결이다. 국가예산 확보 1000억 이상을 위해서는 현재 기재부에 올라가 있는 사안들이 삭감되지 않도록 실과장들이 발로 뛰면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농업, 산업, 관광, 교육, 문화, 복지 등 45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4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민생 해결 방안으로는 일



3선에 당선된 황숙주 군수는 1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실과원장, 읍면장, 주무계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여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자리 창출, 가뭄 해소 노력, 방제사업, 각종 전염병 예방, 악취 해결 등을 위해 발 빠른 대처를 강조했다.

특히 황 군수가 연초에 강조했던 '실사구시' 처럼 순창군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이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황 군수는 투자선도지구와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 대변은행, 팔덕 수변공사, 수

체센터, 섬진강뷰라인 조성사업, 강천산 야간조성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도 당부했다.

황 군수는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대과 없이 지방선거를 잘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순창군민 여러분 덕분이였다"면서 "4년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군민들을 위해서 순창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농업회사법인 이상촌 · 순창축협소협회 업무협약

축협소 판로 · 홍보 기대

순창 농 · 축산물 유통의 선도 기업 농업회사법인 이상촌(주)가 순창축협소협회와 함께 순창축협소 판로 및 홍보에 앞장선다.

농업회사법인 이상촌(주) 실장인 이상촌 대표는 지난 15일 팔덕면 소재의 순창축협소고을에서 축협소협회 이규현 회장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당선된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하여 축협소협회 회원 및 지역민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진행되었다.

체결된 업무협약은 순창 축산물(축협소) 유통의 선진화를 위한 조항으로 이루어져있었으며 특히, 순창 축협소협회의 회원 농가에

의한 우수한 축협소 조달과 축협소 값 등락 시 소비자가를 연동 조절함으로써 지역 축산물의 소비 확대에 중점 되어있었다.

농업회사법인 이상촌(주)는 지역 농 · 축산물 유통의 대표 주자로서 순창축협소의 명맥을 회복 하고자 물품공판후추(구립면), 물품공판우마늘(순창읍)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한우 매입 시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순창축협소 축산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있다.

2018년 개장한 이상촌(주) 로컬푸드 매장은 지역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전시, 판매함으로써 순창(강천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지역을 알리는 안테나 스피커의 역할을 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추진

남원시 상수도사업소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농촌지역 주민의 물 복지 및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8일 남원시에 따르면 올 한해 인월 자래마을 등 16개 마을을 광역상수도 급수 목표로 정하고, 8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상수관로 3.9km, 수도계량기(490여개)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작년 가뭄으로 인해 개인인하수 · 우물 · 소규모수도시설 사용 지역 주민들은 생활용수가 부족하여 극심한 불편을 겪었는데, 올해 광역상수도가 공급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불편이 해소되는 등 주민들의 기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보건소 건강한 우리학교 운영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과 신체활동 부족으로 소아비만이 증가하고 흡연 · 음주 시작연령이 낮아져 성장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조기교육을 통한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지난 2월 관내 초 · 중 · 고 · 특수학교 51곳에 '건강한 우리학교' 프로그램지원 신청 받아 초등(8) · 중등(4) · 고등(2) · 특수학교(1) 총 15개교, 800여명의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령별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내용으로는 흡연폐해예방(청소년 흡연의 유해성, 간접흡연 예방하기), 음주폐해예방(올바른 음주문화 조성, 음주가상체험), 영양(균형잡힌 식단 구성, 건강간식 만들기), 신체활동(키 쑥쑥 몸튼튼 건강체조, 짬뽕미 스트레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이 보리수확 농작업 대행작업단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임실군, 보리수확 농작업 대행단 운영

임실군이 보리와 밀 재배를 활성화시키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리수확 농작업 대행작업단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농작업 대행작업단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든 사업으로, 지난 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작업단은 논 농경지의 경우 벼 재배이후 특별한 소득이 없는 점을 감안해 동절기 보리, 밀재배 활성화 차원에서 농협과 연계한 계약재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안정생산기반 마련과 보리농사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수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군은 특히 지난 2016년부터 농작업단을 구성하고 일반 콤바인 수확 시

곡물 손실율이 30% 이상 발생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리수확 전용 콤바인을 도입, 보리와 밀재배 확대 및 활성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올해에는 보리수확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안정적인 이모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해까지 2개조로 편성 · 운영한 농작업단을 보리수확 콤바인 1조를 추가 확보해 3개조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런 경우 적기 수확 작업 후 벼, 콩, 옥수수 등 안정적인 2모작 작부체계가 확립되고 경지이용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리수확 농작업 대행단 운영을 통한 수확문제 해결로 보리 재배면적은 2016년 36ha, 2017년 58ha, 2018년 84ha로 늘어나 생산비 절감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신덕면행복보장협의체, 기부물품 전달

신덕면행복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환기 · 최종연)는 관내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자제품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복합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인 교류마저 단절된 이웃 7가구를 선정하고 수천마을 김모(82, 여)씨 가구 등 직접 찾아가 자전거, 가스레인지, 식기건조기, 전자레인지, 선풍기 3대 기부 물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협의체는 4월부터 스스로 식사해결이 어려운 독거노인 6명에 대하여 주회 반찬을 지원하는 '나홀로 반찬 서비스'를 시행해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통합 · 대화합의 임실시대 열겠다”

심 민 임실군수, 재선성공 기자간담회... 주민중심형 공약실현 약속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심 민 임실군수는 “임실군민 모두가 행복한 대통합 · 대화합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심 군수는 18일 임실군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함께한 4년에 이어 또 함께할 4년에 저를 선택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며 “선거때 군민들과 약속했던 더 확실한 임실발전을 위해 지내온 4년동안 보여준 그 이상의 땀과 열정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가 전국을 강타한 상황 속에서도 무소속으로 53.5%라는 높은 지지를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정당보다 인물이 우선이라는 군민들

의 현명한 선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아낌없는 신뢰와 지지를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심 군수는 특히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과 반목으로 인한 상처와 분열은 제가 풀어안겠다”며 “상처를 치유하며, 화합과 소통을 통해 ‘임실의 미래100년’을 책임질 도약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그는 민선 6기의 연장선에서 민선 7기에는 ▲함께하는 희망농업을 통한 ‘함께 먹고사는 임실’과 ▲500만 문화관광도시 임실의 ‘살고 싶은 문화임실’,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 및 활력넘치는 청년임실의 ‘아이부터 노인까지 더 행복한 임실의 시대’를 열어갈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800억원대 육정호 수변관광도로 개설 등 숙원사업을 해결해 육정호 종합관광시대를 열어가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더불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반드시 추진해 농촌지역 활성화에 앞장설 것을 피력했다.

또한 도시지역에 버금가는 교육 및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5대 교육정책 및 7대 효심정책 및 지원정책 등 선거기간 동안 약속했던 주민중심형 공약사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민선 7기 굵직한 현안사업으로 일진제강 화성공장 이전과 오수·관촌농공단지 조성, 어린이테마파크 조성, 호국원 박물관 건립, 왕의 숲길 조성, 육정호 유람선 운행 등 임실의 꿈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심 군수는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군정수행에 있어 고향발전을 위한 건전한 충고와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부탁드립니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